KBF Report by Missioar Abraham Kong

이번 어린이 수양회를 참석하며 느낀 점을 전달드립니다.

1. 말씀이 강력한 수양회였습니다. “Wer bist du, Jesus?”라는 타이틀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로 예수님이 어떤분이신지 다각도록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과 그림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쉽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메시지는 듣는 부모들의 마음에도 은혜롭게 역사하였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은혜롭고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증거했습니다.
2. 교제가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아이들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사귐의 시간을 보내며 기뻐하였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어린이는 학교에서 왕따문제로 아픔이 있었는데,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며 기뻐하고 활짝웃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소원을 덧입고, JBF Camp와 Encounter에 참석하고 싶다고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들에게 행복한 쉼과 교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교제나눌 수 있었는데, 부모님들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자발적으로 헌신한 수양회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였고, 부모님들이 자원하여 섬김으로 은혜가 풍성한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말씀강사들도 자발적으로 단순하고 깊이있고 재미있게 말씀을 준비하여 은혜를 끼쳤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물흐르듯 진행되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 수양회이긴 했으나, 부모님들에게도 쉼과 교제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지않고 있으면 안될 것 같은 조바심이 항상 있는데, 이런 부담을 떨치고 편히 쉬고 동역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은혜받았는데, 특히 토니 목자님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앞에서 저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매일 빛이신 주님앞에 나오기보다 어두움속에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좇아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또 교제를 통해 선교사님들의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내려놓으며 주님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